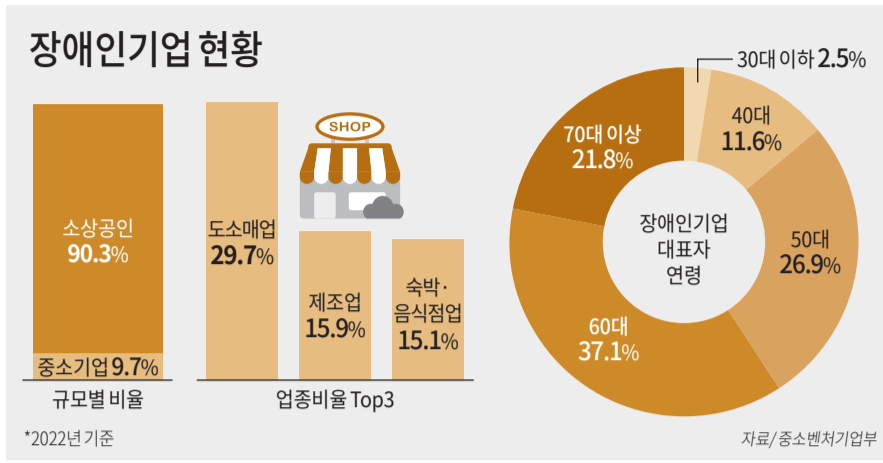


늘어가는 장애인기업... 대표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

중기부, 2022 장애인기업 조사 총 16만4660곳... 2년 전비 43% ↑ 종사자 수는 54만여명 36% 늘어 임직원 약 3명 중 1명 장애인 구성



장애인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자 10명 중 6명 가량이 60대 이상이고, 대표자 평균 연령도 60세를 훌쩍 넘으면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기업 종사자 10명 중 3명은 장애인으로 파악됐다. 또 장애인기업 10곳 중 9곳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소상공인이었다. 1곳당 평균 종사자수는 3.3명이었다. 장애인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꼽혔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중기업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장애인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통계는 기존엔 2년마다 작성해 공표했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나

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숫자는 16만 4660개사로 2년 전인 2020년의 11만 5347개사보다 42.8% 늘었다. 2018년 조사 당시엔 9만 5589개사로 10만곳을 채 넘지 못했다. 장애인기업에 다니는 종사자수는 총 54만 4840명으로, 2년 전보다 35.5% 늘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전체의 32.2% 수준인 17만 5581명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기업은 임직원 약 3명 중 1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됐다. 다만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3.6명(2020년)에서 3.3명(2022년)으로 2년 새 줄었다.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1.3세로 집계됐다. 6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도 21.8%에 달했다. 전체의 58.9%가 대표자 연령이 60세를 넘은 것이다. 반면 30대 이하는 2.5%에 그쳤고, 40대도 11.6%였다. 대표자의 장애유형은 66.8%가 지체

장애였다. 81.3%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4~6급)으로 조사됐다. 전체 장애인기업 중 90.3%(14만 8723개사)는 소상공인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9.7%) ▲제조업(15.9%) ▲숙박 및 음식점업(15.1%) 순으로 많았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경영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해졌다. 장애인기업의 매출을 더한 총매출액은 75조 1368억원으로 2년 전 조사 당시보다 60.1% 늘었다. 영업이익은 7조 6212억원으로 80% 증가했다. 다만 이는 표본으로 선정한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체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22조 2545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했다. 이외에 도매 및 소매업(21조 원), 건설업(14조 원) 순이었다. 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4억 5631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4628만원으로 집계됐다.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51.9%) ▲판로확보·마케팅(39.8%) ▲

인력확보·관리(28.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자금사정은 2.14점으로 여전히 '나쁨'에 머물렀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분야로는 운전자금이 77.3%로 절대적이었고, 인건비(12.8%), 시설자금(3.4%) 등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도 자금 조달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74.7%)를 꼽았다. '세제지원'도 49%로 적지 않았다. 이외에 '판로지원'(24.4%), '인력지원 제도'(18.5%)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기업육성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기업실태 조사가 매년 실시됨에 따라 변화되는 경영환경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원자재 가격정보 무료 제공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지정 약정체결 관련 법률자문 등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에 지정됐다. 3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연동지원 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건의 해왔다. 법제화 후에는 중기부 장관 주재 연동제 현장안착 추진위원회 참여해 연동제 로드쇼 개최, 회원사 대상 원가분석 지원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계획으로는 중소기업이 쉽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약정체결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하는 원자재 가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중소기업 자사 제품의 원가분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동 약정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종별 애로사항을 파악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 등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탁기업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서울맹학교서 특강·공연 펼쳐

'물빛소리 합창단' 사계 중 봄 등 공연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이 서울맹학교서 졸업생 멘토 특강과 문화예술 직업 체험 기회를 만들었다. 31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용산 국립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에서 진로탐색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립서울맹학교는 1913년 설립된 국내 최초 시각장애 학생 특수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의 장애 극복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코웨이는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직업군을 소개하고 시각장애인 합창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진로탐색 멘

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는 재학생 및 교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들의 특강과 합창단 공연으로 꾸며졌다. 특별 멘토로 나선 졸업생 2명은 합창단에 대한 소개와 진로 설계 경험담 등을 공유하며 후배들이 직업 선택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했다.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특강 전후로 공연을 선보이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계 중 봄' 등 계절감을 살린 곡을 비롯해 '미래로 가는 계단', '음악은 항상 내 곁에' 등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곡을 노래하며 꿈을 찾아 성장해나가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보냈다. /김승호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8 | 해질 / 18:55

4월 1일 (월)
음력 : 2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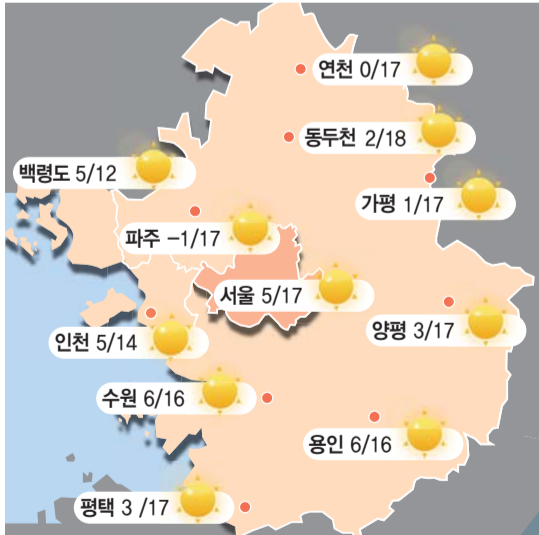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5~1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에이스 하드웨어 클락앤켄싱턴 페인트 할인

유진그룹 계열 유진홈센터의 집수리 전문 브랜드 에이스 하드웨어가 '봄맞이 집단장, 클락앤켄싱턴 페인트 역대급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31일 유진홈센터에 따르면 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봄을 맞아 스스로 집을 꾸미고 고치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가정용 프리미엄 미국 페인트인 클락앤켄싱턴을 전품목 50% 할인 판매한다. /김승호 기자

경동나비엔 '환기청정기' TV광고 론칭

광고모델로 배우 마동석 출연 경동나비엔이 신선한 공기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환기청정기의 장점을 재치있게 담은 신규 TV광고를 론칭했다. 31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새로 선보인 환기청정기 신규 TV광고 '돌고돌고 돌고-환기' 편에선 실내 공기질 관리의 필수인 '환기'의 중요함을 알리고, 하나의 기기로 집안 전체의 공기질을 제어할 수 있는 '환기청정기'만의 특징점을 고객에게 소개한다. 또 환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의 기능에

필터를 통해 깨끗한 새 공기를 수시로 공급할 수 있다는 차별점도 전달한다. 경동나비엔 광고모델 마동석 씨는 '나비엔 숙면매트'와 '나비엔 콘텐싱 ON AI'에 이어 '환기청정기' TV광고에서도 한 번 출연을 펼친다. '마블리(마동석+러블리)'라는 별명처럼 다양한 매력을 뽐냈던 모델 마동석 씨는 이번 광고에서 나쁜 공기와 깨끗한 공기로 1인 2역을 맡았으며, 환기청정기를 통해 실내 공기가 정화되는 과정을 특유의 표정 연기와 맨손 액션으로 재치있게 표현했다. /김승호 기자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7월 나토 정상회의에 기시다 초청 조율 중” 日언론 /사진 뉴시스
▲이스라엘, 네타냐후 사퇴·인질 석방 촉구 시위...“16명 체포”

▲에르도안 ‘정치적 시험대’... 이스탄불·앙카라 탈환 주목
▲이군 정전협상에도 가자시티 폭격, 12명 살해 수십명 부상



▲세계은행, 에티오피아 가뭄 상습지역 300만명에 회복 자금 지원 /사진 뉴시스
▲트럼프, ‘바이든 납치’ 연상 이미지 담긴 동영상 올려